

강령

-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편집인: 조봉호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14 당일빌딩 301호 전화: 전국 02-675-9068 (FAX: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서울 02-634-6508 02-634-4359 (FAX: 02-634-4359) 충주 0441-42-1217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6-1628)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867-5019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산 0551-48-6264 (FAX: 0551-48-6265) 대구 053-764-3911 동해 0394-33-7784 이리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2-1221



“바로 저는 학부모, 우뚝 서는 아이들”

이 땅에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참교육학부모회가 창립된 지 다섯 돌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학부모운동 단체로 활동을 시작하여 이제 굳건하게 뿌리내린 저희 참교육학부모회는 그동안 학부모의 권리 찾기 운동에 중점을 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저희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 보시고 후원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부모회는 이 땅의 올바른 교육풍토를 일궈나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홀로 가슴앓이하는 우리 아이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책
마음의 벽을 트는 대화의 방법과
아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변화시키는
상담의 지혜를 소개.

- ① 상담의 기초이론
- ② 교사효율성 훈련
- ③ 감수성 훈련
- ④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교육상담소 지음/216쪽/4,500원

푸른나무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116-3 전화 701-0657 719-9650 팩스 702-2013

논리적인 사고와 다양한 글쓰기를 요구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학부모가 건네주는 책.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김종호 지음/228쪽/4,500원

글쓰기를 주저하거나 글을 더 잘 쓰고 싶은 아이들
모두를 위하여 논설문·설명문에서 시, 소설, 춘극대본까지
다양한 글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인 글쓰기 안내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일기쓰기/모듬일기 쓰기/자기 신문 만들기/
독후감 쓰기/설명하는 글쓰기/신문-광고 글쓰기/주장하는 글쓰기/
기행문 쓰기/사랑의 해결사/이야기 나누기/시와 친해지기/
공동으로 시쓰기/소설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소설 주인공과 상담하는 글쓰기/이야기 바꿔 쓰기/소설 이어 쓰기/
공동으로 소설 쓰기/영상극 만들기/춘극 대본 만들기/독서퀴즈대회.



사설

창립 5주년에 부쳐

철학, 전문성을 갖추자

한국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학부모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며 모임을 구성한 것이 참교육학부모회다.

이것은 교육사의 한 획을 긋는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5주년을 자축한다고 해서 조금도 쑥스러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참교육 학부모회의 태동은 학부모회 이름앞에 '참교육'이라는 말이 붙어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지난 '89년, 9월 22일, 사회적 산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잘못된 입시제도, 학벌위주의 사회, 열악한 교육환경 등에서 많은 갈등을 겪은 학부모들이 참다운 교육환경을 아이들에게 물려 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학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며 나섰다.

우리는 그동안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 학부모나 아이들을 위한 사업등을 펼치면서 우리가 바라는 교육내용을 현실화 하려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이제는 손색이 없는 5개지부, 12개 지회의 전국 조직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창립5주년을 맞이해 뒤돌아 보며 자부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다. 그것은 창립 당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지금도 현존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모순과 부조리가 해결되기는 커녕 더욱 교묘하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위장되어 과거에 교육현실이 변화되길 바라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문민'이라는 단어에 의식이 무디어져 가고 있는것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는 우리의 사업 방식이 예전보다 세련되고 논리적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철학과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이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학부모회가 원래 원대한 청사진, 이론, 전문성, 조직력에 바탕을 두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학부모들의 순수한 열정만으로 시작했던 터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회는 가정 중심, 가족이기주의적인 사고와 생활형태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욱 명확하다.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각 분야에 대한 철학과 전문역량이다.

지금까지는 철학, 전문성을 외부에 의존하여 해결해 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갖추어야 하며 우리 속에서 학부모 운동에 대한 이론가와 사업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

학부모 운동을 정립할 이론가와 이론을 실천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수 배출될 때 개인은 자부심과 능력을 갖게 되고 조직은 왕성한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창립 5주년 기념 행사 가져

자문위원 구성 역사자료집 발간도

참교육학부모회는 창립 5주년을 맞아 오는 29일 여성백인회관에서 기념식을 비롯해 공청회와 문화행사 등을 열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식(오후 4:30분) 외에도 본회가 지난 2개월여 동안 전국적으로 조사해온 설문조사(미디어리서치 분석)를 바탕으로 공청회(오후 2시)도 열린다. '교육자치제와 학부모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공청회의 내용은 '교육자치제 시대에 있어 학부모 운동의 의의와 발전 방향(이규환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현재 교육자치제의 문제와 개선 방향(박두규 전남교육위원), 참교육학부모회 평가 및 활동방향(본회 감사)이 발표될 예정이다.

반면 이날 행사 외에도 창립 5주년 기념 사업으로 본회가 교육단체로서의 역량을 보다 확실히 갖추기 위해 사회

각계에서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을 구성 중이며, 역사 자료집 및 학부모회 안내책자 발간, 이미지 포스터 제작 등 여러가지 사업도 함께 병행 중이다.

자문위원으로는 현재 강명구(서울대 교수), 심성보(한국교육연구소), 유홍준(영남대교수), 정해숙(전교조 위원장) 등이 결정되었으며 이 외에도 사회 각 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역사자료집에는 그동안 학부모회가 펼쳐왔던 학부모의 권리찾기 운동에 대한 활동(돈봉투, 육성회비 반환소송, 교육위원회 참관, 부당 찬조금, 고발창구 설치 등)과 홍보사업, 부모대상 사업, 어린이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반면 현재 전국 5개지부에서는 지부별로 지역 특성에 맞춘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중이다. (4면 참조)

교개위 사립학교 입시부활 건의

과열과외, 사교육비 증가 우려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5일, 21세기의 신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교육개혁안에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와 동시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립중·고교에 대한 자유경쟁방식의 입시부활에 따른 학생선발의 자율권부여'와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여러가지 세금들의 신설 및 부과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막대한 사교육비의 일부가 공교육으로 돌려져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일면 공감하면서도 당국이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각종 교육세를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사립학교의 학생선발의 자율권부여에 따른 공납금의 차등부과와 진학율

을 높이기 위한 학교측의 치열한 입시경쟁,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학교까지로의 과열과외의 급격한 확산이 심각히 우려되는 가운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더욱 더 가중될 소지를 안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회에서는 이번 교육개혁안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 적극적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학부모 신문 기자 모집

학부모 신문에서는 이땅의 교육이 바로서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참여를 바랍니다. 경험이 부족한 분들도 위해 취재·편집·사진·워드프로세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성사에서 부모를 돕는 책이 나옵니다

여성사는 출판물 통해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남녀 모두에게 공유되어 생활 속에서 무르익은 실천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나아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키워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부모를 돕는 책」에서는 양성성 회복과 민주주의 훈련에 초점을 맞춰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 학부모 역할 등을 주제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사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애정어린 격려와 비판을 맡겨 주십시오.



주소: (120-180) 서대문구 창천동 502-7 (2층)
전화: 324-1885 / 팩스: 336-1639

1 부모가 도와주는 행복한 그림그리기
아이는 그림으로 말한다
박금숙·이은순 지음
아이에게 그려준 부모님의 그림이 아이의 상상력과 표현능력을 막아버린다면 속상하시겠지요? 이제는 그림으로 자녀와 대화하고, 성장을 도와주시지요.

2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하는 책
이제는 좋은 아버지가 되자
좋은아버지가되려는사람들의모임 지음
권위적이고 엄하기만 한 아버지가 아직도 이상적인 아버지상인가? 가정과 아버지의 역할을 새롭게 생각해 봅시다.

3 외동아이가 잘 키우기
하나 키우기 둘보다 어렵더라
기순신·함희숙 지음
혼자 자란 아이는 문제가 많다? 문제는 외동 아이를 보는 부모와 어른들의 눈입니다. 한자녀 부모, 둘째아이를 고민하는 분들께 권합니다.

4 부모와 함께 하는 아이의 행복한 글쓰기
우리아이 글쓰기, 이렇게 도와주자
김명숙 지음

처음하는 글쓰기 돕기/주눅든 글쓰기 살리기
아이가 글쓰기를 좋아하도록 하고 글쓰기를 통해 아름다운 삶을 찾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글쓰기 지도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5 가족신문 만들기
우리 집에서도 신문이 나와요
곽정란 지음

가족공동체 문화를 가꾸어가는 가족신문의 좋은 점과 제작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부부의 생활글이나 아이 그림, 할아버지 편지, 친척과 이웃 소식까지 담아낸 가족신문으로 가족사를 정리, 기록할 수도 있다.



아이와 장난감
⑥ 놀면서 배우요
문미옥 지음 <근간>

부모-자녀 관계
⑦ 자녀와 공감을 맞습니까
이혜련·김성은·이기연 지음 <근간>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
⑧ 예비 학부모 교실
권명자 지음 <근간>

영어 적기 교육
⑨ 우리아이 영어공부, 이렇게 도와주자
최진왕 지음 <근간>

책하고 놀러가는 새로운 가족문화
⑩ 우리집 아이는 책을 안 읽어요
어린이도서연구회 <근간>

동화읽는 어른 되기
⑪ 어떤 책을 읽어야 하지요?
조월례 지음 <근간>

내년 대입 정원 대폭 늘려

95학년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정원이 94학년도보다 4만 4천여명 늘어나 개방대 증원을 포함하면 95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은 총 4만9천여명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95학년도 4년제 대학입학정원 (의대 신설 및 증원 제외)을 올해보다 1만9천9백여명, 전문대 정원은 2만 3천 9백여명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4년제 대학증원분 중 최근 논란을 빚어온 의대정원을 2개 사립대에 의대(정원 50명)를 신설하고 기존 5개 대학에 20명씩 정원을 늘려 증원폭을 2백명으로 할 방침이다. 개방대학은 5천1백여명 증원된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입학정원은 94학

년도 23만 2천 5백 55명에서 총 25만 2천 6백여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전문대 정원은 19만 3천 70명에서 21만 7천여명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대학입학정원(개방대 제외)은 46만 9천 7백여명 내외로 올해보다 10% 늘어나고 고3 입시생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4년제 대학 경쟁률은 94학년도에 3.4대 1이었으나 이번 입시에서는 3대 1을 밑돌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이 증원할 경우 개방대 및 방송통신대 정원을 포함하면 대학입학정원은 고교졸업자 75만명의 78% 이상을 수용하는 총 59만여명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서울, 고입내신에 자원봉사 반영

시교육청은 8월 12일 내신성적만으로 고입입시를 치르게 되는 내년도 중학 신입생부터 최고 1백시간 이내의 사회봉사활동을 중학생활동기록부 행동발달상황에 기재, 이를 내신성적으로 평가해 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회봉사활동 배점 기준

을 일단 현행 고교입시 체력장 배점기준인 입시총점의 10%이내로 잡고 있다.

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관내 9개 교육구청당 2개교씩 18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사회봉사활동, 내신성적평가를 시행한뒤 이를 토대로 공정화등을 거쳐 내신평가의 문제점을 보완기로 했다.

여고생 74% 척추자세 이상

연세대 영동 세브란스 병원 문재호 교수(재활의학과)가 서울시내 여고생 5백 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내 여고생 척추자세 조사'결과에 따르면 척추자세가 정상적인 여학생은 전체의 26%인 1백 44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백 4명(74%)은 척추자세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자세 측정기를 이용한 문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척추가 뒤로 휘어 등이 구부정해지는 상태인 척추후만증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66%인 3백 6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척추가 앞으로 휘어 배가 나오고 허리가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척추전만증이 전체의 38%인 2백 7명이었으며 척추측만증은 96명으로 18%의 분포를 보였다.

문교수는 이처럼 척추자세 이상자가 많은것은 이들 여고생들이 하루 평균 15시간 정도 앉아서 공부나 과외등을 하는 데다 체격에 맞지 않는 의자와 책상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어린이 대상 폭력 영상물 허용 한계 어디까지인가

어린이 대상 영상물 대책위는 폭력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현실에서 TV로 방영된 「무적 파워 레인저」가 비디오로 출시 되는 것을 놓고 어린이 프로 심의의 허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5명의 소년 소녀들이 지구를 정복하려는 마녀에 대항해 싸운다는 내용의 「무적 파워 레인저」는 지난 1월~5월 KBS 2TV에서 방영될 때 지나친 폭력 장면으로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계몽 아트홀이 KBS에서 비디오 판권을 사서 문공부에 비디오 복제 허가를 신청했다가 폭

력성을 문제 삼아 금지 당한바 계몽 아트홀이 행정 심판을 청구하여 계류중이다.

대책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 방송위원회와 문화 체육부에서 이루어지는 TV와 비디오 매체의 심의가 일원화되어야 하며 심의가 보다 전문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책위는 오는 13일 폭력 영상물에 대한 공청회를 마련하고 「무적 파워 레인저」비디오의 복제 허가가 날 경우 시민서명을 받아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 아이들의 이성교제

남녀 친구는 여러사람과 가볍고 넓게

“아이들은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부모에게 쉽게 풀어 놓지 않는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른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성이야기를 하도록 먼저 그들의 주변에 있는 이성에 대해 묻고,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저희아이는 국민학생인데 큰 키는 아니지만 귀엽게 생긴 타입이지요. 여학생들한테 편지와 전화가 많이 와요. 지금은 웃고 넘기지만 중학교 가서도 그럴까봐 은근히 걱정이예요.” 말로는 건전하게 사귀라고 했지만 성적이나 정서가 불안정해 질까봐 가능한 규제하게 된다는 학부모 김순이씨는 차라리 못생겨 인기가 없는 아이들이 부럽다고 한다.

가정에서 성적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이성교제. 최근 청소년상담단체등에 걸려오는 전화가운데 이성교제 문제가 항상 1, 2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나 교사들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나 대안없이 이를 막아야 하나 허용해야 하나로 고민하고 있을 따름으로 아직도 이성교제를 나쁘게 보거나, 성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아주 극소수의 탈선학생들 뿐이라고 믿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부모들도 많다.

교육전문잡지 '우리교육'에서 1백 20 여학교 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의식대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 꼴로 이성친구가 있다고 조사됐다.

지금 사귀고 있는 이성 친구가 있는

나는 물음에 31.3%가 그렇다고 대답. 급별로 보면 중학교 25%, 인문고, 36%, 실업고 40.1%로 나타났다. 성적별로 보면 상위권 학생보다는 하위권 학생들이 (상28%, 중 31.3%, 하 35.7%), 경제적인 수준으로 보면 낮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성친구를 많이 사귀고 있다.

그러면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는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만나 사귀게 되었을까? 이를 묻는 질문에 친구소개로 만났다(30.1%)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만났다(23.4%)는 학생이 많았다.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비율이 높고 (28.6%) 실업고 학생들은 친구소개로 만나는 비율이 높았다 (46.5%). 또 남녀공학(36.1%)이 비공학(14.8%) 학생들에 비해 학교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무시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지금은 공부할 때'라는 식으로 내몰며 지나치게 금지할 경우 오히려 음성적인 형태의 이성관계로 나갈 수 있다.

“청소년기에 이성에게 관심 갖는 일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우선 부모의 이해하는 자세가 전제 되면 자신의 이성친구를 가족에게 소개

할 수 있고 공개적인 만남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성교육 전문가 이화연씨는 부모가 어릴때부터 동네, 종교단체 등의 동성, 이성친구를 집에 초대해 자연스럽게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무조건적인 강제로 금지하는 방법은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부모 몰래 전화하고 만나는 문제는 이차적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이성간에 서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무작정 좋아해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고 심지어는 “00는 내꺼”라는 식의 소유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화연대 교육심리학과 전찬화교수는 “정해진 이성고 오랫동안 깊이 교제하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가볍고 넓게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성과 일대일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 당황함이 곧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모가 아이들의 이성교제를 걱정하기 보다는 한 사람과 깊게 사귄 때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해야한다고 말한다.

대한가족계획협회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는 청소년은 38.7%이며,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키스나 포옹을 할 정도가 20.9%, 성관계를 맺은 청소년도 2.2%정도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전 교수는 “이성교제에 필요한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슬기와 힘을 키워줘야 한다. 부모가 교제를 허락할 때는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해야한다”며 이성교제는 부모의 동의가 아닌 허락에 따를 수 있도록 부모자녀간의 관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명자 기자)

학부모 만평

이숙자



◇ 심각한 학교내 체벌

일부 교사 체벌 폭력으로 치달아

학생시절 교사로부터 매질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지금까지도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훈육의 도구로 쉽게 쓰이고 있다. 체벌에 대한 찬반론이 학부형과 교육학자들에 의해 논의에 붙여지기도 하지만 아직도 어떤 기준이나 원칙 없이 체벌이 행해지고 있다.

체벌이 교육의 도구로 쓰여진다고 하지만 종종 그 도를 넘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수도 있다. 부당한 체벌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항의를 하는 수도 있으나 그런 행위가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불만스럽지만 대개는 참고 넘어간다.

체벌이 사랑의 매인가?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교사가 되는 것을 '教鞭(교편)'을 잡는다는 말을 쓴다. 「鞭」은 채찍이라는 뜻이다. 이 채찍은 '사랑의 매'로 교육에 쓰여져야 하는데 일부 교사에 의해 '폭력행위'로 변질되고 있다. 물론 학생들을 교육할 때 '상과 벌'이 따라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벌'이 꼭 매질이어야 한다는 의문이 생긴다.

매질, 즉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 교육의 효과를 거두려 하는 것, 이것은 교육의 참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며 심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 가운데는 체벌을 찬성하고 오히려 때려 달라고 하는 이도 있다.

교육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체벌이 특히 체벌을 당하거나 그것을 보는 학생들에게 자칫하면 폭력이 문제 해결의 빠르고 쉬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며 폭력에 둔감해질 수 있다고 교육 학자들은 잦은 체벌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을 둔 영등포의 윤모 주부(38)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 제일 힘들어 하는 일이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친구를 보는 것과 자신도 맞을까

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고 심각한 성격탓인지 눈을 깜박거리는 '틱 장애'까지 일으켰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받아들이는 것 같고 매일 보는 일인데 관심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아이가 때리고 맞는 것에 대해 둔감해진 것에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고 했다.

Y중 2학년 S군(15)에게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보았다.

수시로 있는 일이고, 이유도 모르고 맞는 수도 있지만 만성이 되어서 에이 때리면 맞지 않는 생각이고 대개 체벌을 하는 선생님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오면 그러려니 하고, 또 시작이구나 하는 느낌뿐이라고 했다. 친구가 맞을 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자신까지 맞을까봐 모른척하고 넘어간다고 하며 대부분의 학생들도 체벌을 많이 하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조금도 없고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한다고 했다.

체벌이 교육에 있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을 폭력에 무감각한 눈치 꾸러기로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체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다만 교육법 76조에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 76조의 '처벌'이라는 개념속에 체벌까지 포함되며 교육목적에 위한 적절한 선의 체벌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랑의 매'라는 명목의 체벌이 그 한계를 넘어 '폭력 행위'가 되고 피해를 받은 학생의 부모가 소송을 거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재판부도 체벌을 교육자들의 권한으로 인정하던 것을 최근에는 체벌의 한계를 엄격히 따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

90년도 대구 북비산 국교의 여교사가 직경 3cm 길이 50cm의 봉으로 시험성적이 나쁜 국민학교 5학년 여학생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아파서 피하는 학생의 허리 부분을 다시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2심과 3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 동년 11월 부산고법에서는 학생의 뺨을 수십차례 때려 왼쪽눈을 실명케한 정모교사에게 구



△말로 하면 안 된다. (이 기사는 본문과 관계없음)

백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91년도 6월 서울 성수중학교 체육교사 조모씨가 수업중 장난 친다고 이 모군을 나무막대기로 머리를 때려 중태에 빠뜨렸는데 교사는 폭행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이 같은 한계를 넘어선 체벌행위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갈등에 빠뜨리고 사회문제로까지 심화된다.

열악한 교육환경 체벌 불리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입시위주의 현실앞에서 체벌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교사들도 있다. 서울 강서 B국민학교 최모교사(33)는 "한 학급에 60여명이 넘고 과보호로 자라난 아이들은 멋대로 행동하는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수업을 끌어가자면 불가

능 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심하게 수업방해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몇번의 주의를 주다가 대개 체벌을 가하게 됩니다"라고 했다 과밀학급 속에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불가능해 위압적인 방법으로 통솔해 갈수밖에 없다고 교사들은 얘기한다.

강남의 K 고등학교 손모(45)교사는 "단체 생활에서는 규율이라는게 꼭 필요하다. 잘못이 있다면 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다"라고 말하며 "모든것을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과보호와 무제한적인 허용으로 길러 이기심과 버릇없는 아이들로 만든 부모들의 책임도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교사마저 규율과 질서를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대다수 학생 체벌 경험

그러나 체벌을 반대하는 교육 학자들은 '체벌이 잘못된 행동을 일시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있으나 길게보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체벌받는 학생에게 억압된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가 공격적인 다른 행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91년도 여름에 구리·미금·남양주의 현직교사들이 그 지역 고교 1·2년 300명을 대상으로 체벌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거의 모든 학생들이 체벌을 당했으며 체벌을 당한 뒤 '학교가 싫어지고 선생님이 두렵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체벌에 쓰이는 도구로는 전통적인 회초리, 각목, 알미늄 야구방망이

심지어 하기채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체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성이 엿보인다. 체벌이 교육적이 되려면 체벌에 관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엄격한 기준 아래 체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체벌에 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원칙없이 감정을 앞세워 체벌을 하는 교사는 '폭력 교사'로 부르고 있다. 아직 학교내에서 폭력이나 체벌이 다반사로 행해지고 학생들은 그것을 무조건 감수할 수 밖에 없어 두려움과 불만속에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체벌보다 '사랑'으로

20세기 존 듀이 등 진보적인 교육 사상가에 의해 체벌이 비 교육적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 되면서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났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1879년에 금지되었으며 소련과 중국도 이미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9개주가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주가 체벌금지를 입법화 할 추세이다. 또한 허용하는 주에서도 체벌규정이 엄격하게 되어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도 체벌을 교육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체벌에 반대하는 단체도 생겼고 체벌의 교육적 효과보다는 반작용이 더 크다고 교육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현실인 과밀학급,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체벌의 완전 추방이 어렵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선 비 교육적이고 감정이 앞선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막을 수 있는 체벌지침을 만들고 체벌행위를 심의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교육에서 체벌보다 '사랑'이란 훈육이 교육의 좋은 효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김해순 기자〉

교육 모 4 터

모임

MBC어린이 프로 「논리 쏙, 재미 쏙」을 보고

논리적 사고 위한 기획 의도 교육적 배려 돋보여

MBC 문화방송 수, 목요일(5시 40분~6시)의 어린이 교양프로 「논리 쏙, 재미 쏙」(연출 강현근)을 시청하고 느낀 점 몇가지를 정리하였다.

우선, 비슷한 시간 다른 방송사의 외화, 수입만화 일색의 어린이프로와 비교해 볼 때 어린이 교양프로로서 가치 돋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즉흥적 감각적 대응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논리적 사고를 키워

주려는 기획의도와 교육적 배려가 돋보인다. 아울러 주제 음악에 있어서도 랩 음악과 가사,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의 조화가 참신하며 김수정, 김학도의 무리없고 튀지않는 진행도 무난하다.

그러나 지난 8월 25일 방영된 추리교실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날 방송에는 아역 탤런트 3명과 가수

김흥국씨, 그리고 추리 소설가가 출연하였다. 3명의 아역 탤런트가 각자 논리적 주장을 펴고 그 주장에 대해 추리소설가가 논리를 보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느낀 몇 가지를 지적해 보자.

첫째, 가수 김흥국씨가 왜 등장했는지 영 이해가 가지 않는다. 둘째, 이 프로의 초창기에

는 일반 어린이들이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이 날은 아역탤런트로 교체되었고 일반 어린이들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진행상 아역탤런트의 출연이 불가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은 이 프로그램의 들러리로서 은연 중 소외되지 않았나 보여진다. 셋째 준비된 드라마의 소재가 '살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추리력 계발에는 소재

가 꼭 '살인 사건'이어야만 하는가? 병실에 침입한 살인자. 재산 분배와 유서, 변호사와 젊은 부인과의 석연찮은 관계, 산소 호흡기를 때는 잔혹성. 가뜰이나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는 세대가 걱정스러운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성인프로를 닮아가고 있다. 넷째, 준비된 드라마를 놓고 추리를 하는 것이므로 드라마의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프로에서 아쉬운 점은 문제제기에 성공했으면서도 뒷마무리가 덜 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조은경 정리〉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14 당일빌딩 301호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6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린, 허리동무!

결혼 하기전, 그리고 그후 몇년동안에도 나는 남편과 어깨동무하기를 즐겼다.

그것은 "어깨동무 새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하던 어릴 적 노래를 떠올리며 느끼는 향수와 오랜 친구같은 기분을 갖게 하기 때문이었다.

이젠 키가 훌쩍 커버린 아들이가 엄마를 닮았는지 억지로 팔을 위로 올려 어깨동무를 하려고 한다.

키차이가 나서 불편하다고 했더니, 다정다감한 아이는 어느새 허리에 손을 감는다.

"어, 우린 허리동무구나!"했더니 아들이 좋아라 웃는다. 책방에 같이 책 빌리러 갈때나, 시장 갈 때, 산책을 갈 때 항상 우린 허리동무다.

아이가 하나라 가끔 친구를 불러서 재우는데 녀석들이 밤늦게까지 소곤댄다. (남자들도 수다쟁이라는 걸 새삼 실감한다.) 다음날 아침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어보니 비밀이란다. 그래도 이 어미의 호기심을 잠재울순 없었다.

산책을 좋아하는 우리는 - 아니 정확

히 말하면 걷기를 좋아해서 저녁식사를 끝내면 가끔 아파트 주변을 걷는다. 산과 가까워서 새 우는 소리도 들리고 밤공기가 상쾌하다. 저녁 산책길, 보름달 아래서 나는 은근히 그 비밀이야기를 물었다. 엄마의 신뢰도를 강조하면서 아빠에게 말 안하기로 약속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성문제였다. 빠르기도 해라. 3학년인데.

"엄마, 이상하게 00에게 마음이 이끌려요. 마음을 쓰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다가가요."

그 친구와 서로 좋아하는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언젠가 나도 한번 본 적 있는 그 아이를 떠올리며, 아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도 속없이 좋아졌다.

"엄마, 나는 너무 일찍 이성에 눈뜬거 아녜요?"

"아니야, 너는 여자친구 보는 눈이 깊어(?)질 것 같은데!"

나는 빙긋이 웃으며 머쓱해하는 아들이 아이의 어깨를 두들겨 주었다.

(중서부·홍월선)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가 됩시다!

지난 7월,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친구 엄마의 얘기를 듣고서 나는 우리 아이가 원장선생님과 보조교사의 지도만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의 담임이 유치원을 그만둔 이유를 원장은 건강이 안 좋아서라고 이야기 했지만 얼마후에 알고 보니 원장과의 의견대립이었다. 딸아이 담임은 원장에게 원아들에 대한 투자를 증가할 것, 교사에 대한 인격존중, 교육방법에 대한 원장의 간섭배제등 3월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시정해야 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원장은 이를 묵살. 결국은 학기도 마치지 않은 채 담임을 해임해 버린 것이다.

이에 우리 엄마들은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에 아이를 맡겼지만 중간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10여명의 엄마들이 모였다. 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시정을 청했다. 그러나 원장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엄마들의 뜻을 묵살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웠다.

그래서 우리 몇몇 엄마들은 구교육청과 교육부, 대한유치원협회 등에 이 일에 대해 문의하고 진정을 했으나 '시립유치원'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다.

관인유치원도 이 지경이라니... 엄마들은 유치원의 부조리와 비리를 알고도 어느 곳 한 군데 하소연할곳이 없었다. 우리는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없다는 서명을 부모들로부터 받아 유치원으로 찾아갔다. 그러자 원장의 태도는 180도로 달라졌다. 우리는 원장으로부터 아이들을 안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잘못했으니 이해하고 앞으로는 꼭 시정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들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장은 우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 엄마들은 그동안

유치원비와 교재비, 의료보험비, 캠프비용 등등 부당한 잡비 사용내역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원장은 오히려 주동자가 누구며 경찰을 부르고 구속시키겠다는 등 교육자의 입에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언어들 이 쏟아지고... 유치원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쉬쉬하는 엄마들 속에서 힘든 일도 많았으나 모두 힘을 합쳐 한 마음이 되고보니 의외로 원장은 또다시 저 자세로 나왔다.

결국 원장 부부는 그동안의 부조리와 터무니없는 교육비와 잡부금을 시설투자에 쓰고, 선생님들에 대해 인격적인 대우를 하겠으며 원장이 교육과정에 대해 지나친 간섭은 않겠다는 약속을 엄마들에게 다시 했다.

'바로 이거구나! 우리 엄마들이 깨이면 이런 것쯤은 거뜬히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 우리 엄마들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단순히 맡기는 교육이 아니라 참여하는 교육풍토가 조성될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모두들 참 대견했다. 교육이든 무엇이든 어떤 일이나 방관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나에게도 큰 수확이었다.

새 학기가 되면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이 모여들 유치원에 대해 이제 우리 엄마들은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그 동안의 앙금도 씻을 겸 우리 엄마들은 스스로 자모회를 구성하여 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담임 선생님은 비록 바뀌었지만 새 단장을 했다는 유치원 시설도 보고 싶다. 참으로 덥고 힘든 여름이었지만 그냥 던져진 교육환경으로부터 내 아이를 구한 것 같아 가슴 뿌듯하다.

엄마들이여! 우리 이제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가 됩시다.

(관악구 이진자)



오늘 급식 최고!

"내가 카레라이스 좋아하는 것 어떻게 알았지?"

오숙희 자전 에세이집

그래, 수다로 풀자

남자가 중심인 사회에서 여자라는 것, 여전히 아들을 바라는 세상에 딸만 둘 낳은 것, 아직도 사회적으로 편견이 남아 있는 이 혼녀라는 낙인,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게 소외감을 강요한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내 앞에 닥칠까? 그러나 나는 안정된 중심보다는 불안정한 주변을 맴돌고자 한다. 거기서 어린 시절 친구를 모을 때처럼 새끼손가락을 높이 쳐들며 외치려 한다.

"아무 데도 못 간 사람 여기 붙어라!"

식필

●신국판 300면, 값 5,000원, 전화 265-3943



유쾌한 구두식들

어째서 요즘 아이들은
도통 물건 아까운 줄을 모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모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칼로 책을 사주신 어머니(김진홍/목사), 쉬어찌개의 묘미(이나미/의사), 광고지를 접어 만든 상자 사백 개(석주선/복식학자), 여덟 달 만에 건네 주신 보약(남기성/국문학자)

...

열일곱 新구두식 열전!

X세대 자녀들에게 평한 감동 속에 구두식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신국판 258면, 값 5,000원

식필

☞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 ①

인간관계 형성의 기초는 의사소통

□ 효과적인 대화법 터득하여 자녀와 좋은 관계 맺도록

“아들이 중학생이 되더니 나하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뭘 물어봐도 ‘엄만 몰라 두 돼요.’ 하면서 똥끼기만 하고... 좀 컸다고 엄마를 무시하나 싶어서 서운하더라구요.”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는 말 끝마다 ‘엄마는 구식이야.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해.’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서로 진실된 얘기를 나누기

원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커 갈 수록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 부모 자식간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녀가 중고생 이상인 가

정에서는 기껏해야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애, 뭘 먹어라, 공부해라, 시험 잘 봤니?” 등 아주 일상적인 것에 머무르고 맙니다. 자녀가 자신의 고민을 진지하게 부모에게 털어놓고, 인생에 대해서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가정

부모와 자녀는 혈연관계라는 미명하에 서로 무신경하고 배려하지 않아서 작은 일에도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자녀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노력해야만 좋은 인간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결코 저절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노력해야 될 쪽은 당연히 자녀보다는 부모 측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자녀보다 앞서 인생을 산 선배로서 그들에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우호적이고 진실한 인간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터 놓고 무엇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

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대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음호 부터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진 P.E.T강사〉

두밀학교 살리기

1천만원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밀학교를 살리기 위한 연대모임에서는 폐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전달할 1천만원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뜻있는 분들의 정성어린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은행 373-21-0023-856 (예금주: 이정진)

신택은행 23307-3416701 (예금주: 이정진)

전화: 678-9167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

미래의 유망직업

(3)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개인, 가족, 집단의 교육과 건강 생활을 돌보아주는 전문인이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이 처한 문제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해 도움을 주어야 할 정도와 범위를 평가하며, 필요한 지원을 하기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국내외의 후원자들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또 장애고아나 영세환자를 위한 치료비와 의료활동을 지원하며, 개인 또는 단체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맡아서 관리한다. 그리고 주택, 생업, 학자금 및 의료문제에 관한 조언과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상은 사회복지사들이 공통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나 그 밖에 미혼모의 산전, 산후 건강관리나 상담활동, 사회복지기관의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의 상담과 보호조치, 국내외 입양아에 대한 위탁가정보호업무, 청소년 문제의 상담이나 해결,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업무중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국에 있는 120여개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장애자를 수용, 교육하는 재활원의 교육기관 혹은 읍, 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근무한다.

사회복지사는 특별한 적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 건설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명의식,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좋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자격증 제도는 1983년 부터 시행되었는데 특별한 시험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연수과정을 거치면 취득할 수 있다.

연수과정에 입학하려면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입학

경쟁률은 20:1 수준인데 현직에 있지 않은 사람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연수비는 전부 국고부담이다.

복지사 자격증은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격과 연수기간이 각각 다르다.

3급 자격증은 전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자, 전문대 일반학과를 졸업하고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연수과정을 12주 이상 연수한 사람, 고졸자로 연수원 교육을 24주 받은 자, 사회복지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연수원교육을 24주 이상 받은 사람에게 준다.

2급 자격증은 3급 자격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전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자로 연수원 교육을 8주이상 받은 사람, 일반학과 대학졸업자로 12주 이상의 연수 교육을 받은 자에게 준다.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은 사람,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에게 주어진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경우 초봉이 월, 50만원 선에 보너스 연, 400%이며 2~3년이 지나면 월 60만원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공무원 급여체제에 따른다.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체에서 일하는 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그 복지사의 5분의 1 이상을 1.2급 자격증 소지자로 둘 것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1년에 1,647명, 1992년에 총 4,000명의 사회복지사가 선발, 배치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읍, 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배명희 기자〉

우리말 유래 사전



박일환 역음/ 이강로(前단국대 교수/ 한글학회 이사), 남기심(연세대 교수) 감수 / 값 6,000원

판에 박다: 아주 똑같다. 천연일물적이다
▶ 떡이나 다식(茶食) 같은 과자를 만들 때 나무로 떡판이나 다식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재료를 넣은 다음에 박아 내면 모양이 한결같았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물에 박다’ 또한 같은 어리로 만들어진 말이다.

“아빠하고 나하고 판에 박은 듯이 똑같대요. ‘판에 박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엄마, 시치미 떼지 말라고 할 때 ‘시치미’가 무슨 뜻이에요?”

“.....”

“엄마, 나보고 벽창우 같은 녀석이래요. ‘벽창우’는 또 무슨 말이에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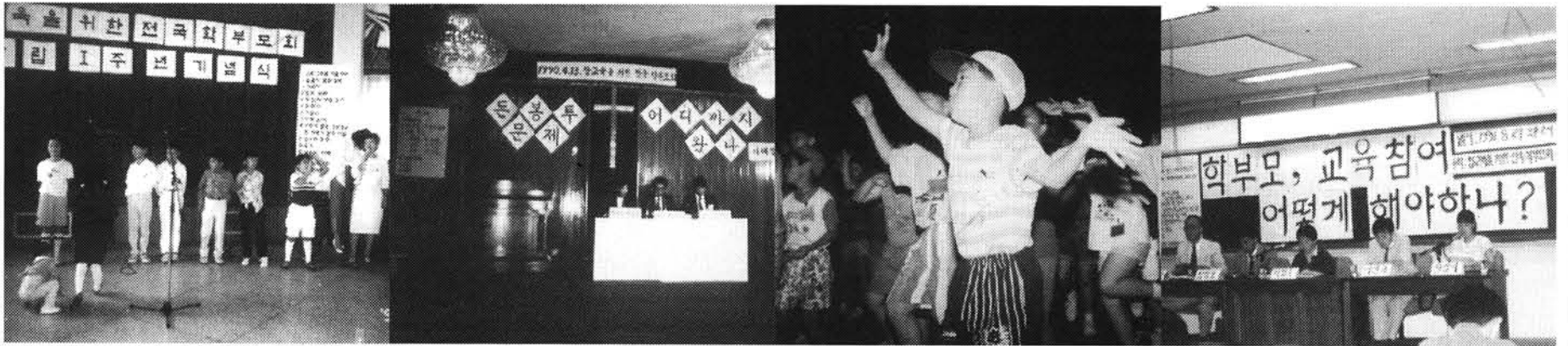
아이들이 자꾸만 이것저것을 물어오는데

글쎄, 그 뜻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우리말 유래 사전』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생깁니다.

“응, 그 말은 말이지.....”



▲ 9월로 창립 5주년을 맞는 참교육 학부모회는 그동안 참교육 실현을 위해 활발한 교육운동을 전개해 왔다. 사진 왼쪽으로부터 「창립 1주년」기념식, 「돈봉투 문제,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학부모 교육참여 어떻게 해야 하나」공청회, 제 3기 숲속학교 행사 모습.

창립 5주년 전국 기념 행사 안내

9월은 참교육 학부모회가 5돌을 맞이하는 달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부모회는 이 땅에 참교육이 실현되는 그 날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활발한 교육운동을 펼쳐왔다.

그간의 활동을 발판으로 창립 5주년 기념 사업으로 참교육 학부모회 전국 각 지부·지회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행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서울지부

▶ 교육기자간담회

- 일시: 9월 27일 (화)
- 주제: ①학부모 5년 활동보고
②창립5주년 기획행사 안내
③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
④학부모운동에 관한 종합토론
- 문의: (02) 634-6508

이리지회

“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기행”

- 일시: 10월 8일 (토)
- 시간: 2시 30분
- 장소: 이리, 일산지역 향토기행
- 회비: 가족당 ₩10,000
- 문의: (0653) 856-0340

울산지회

“어린이와 함께 하는 제1회 학부모 역사기행”

- 일시: 9월 25일 (일)
- 시간: 오전 8시
- 장소: 경주(석굴암, 불국사, 경주 박물관, 황룡사지 등)
- 문의: (0522) 46-0677

전주지회

“학부모가 만드는 인형극 공연”

- 일시: 9월 24일 (금)
- 시간: 7시
- 장소: 고백교회
- 문의: (0652) 231-6242

마산지회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역사기행”

- 일시: 10월 22~23일
- 장소: 동학전적지
- 문의: (0551) 48-6264

부산지부

“좌담회-부산지역에 있어서 참교육 학부모회의 위상과 역할”

- 일시: 10월 8일
- 문의: (051) 247-1795

대구지회

『가족 동반 대회』

- 일시: 9월 24~25일
- 장소: 경주 남산
- 문의: (053) 755-6409

사계절 열린교실

「반갑다, 논리야」를 펴낸 사계절출판사에서 학부모 및 청소년 열린 교실을 개최한다.

1. 학부모를 위한 열린 교실

강좌	강사	강좌시간	수강료
우리동화교실	이재복 (동화평론가)	매주 목요일 10:30~12:10	3개월 12주 60,000
우리역사교실	박준성 (대학강사)	매주 금요일 10:30~12:10	3개월 12주 60,000

2. 고등학생을 위한 열린교실

강좌	강사	강좌시간	수강료
논리철학교실	강성화 (대학강사)	매주 화요일 18:00~19:40	3개월 12주 60,000
문학교실	박영신 (국어교사)	매주 금요일 18:00~19:40	3개월 12주 60,000
만화사랑방	강동현 백정숙 (만화가)	매주 목요일 18:00~19:40	3개월 12주 60,000

3. 강좌기간: 94년 10월 4일 (화) ~ 12월 23일 (금)

각 강좌 3개월 12주

4. 접수: 94년 9월 12일 부터 선착순(각 강좌 30명)

공연소식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94 노래판국 꽃다지 “모여 드세”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기간: 1994년 9월 28일 (수) ~ 30일 (금)
- 28, 29일 (수, 목) 오후 7시 30분 30일 (금) 4시, 7시 30분
- 관람료: A석 15,000 B석 10,000 (20인 이상 단체관람 경우 할인)
- 전화: 765-1752 (꽃다지 기획실)

추석맞이 선물 품목

- 진도 홍주 20,000
- 죽염 비누 세트(2개) 8,000
- 천연 딸기잼 7,000
- 이십전대보탕 35,000
- 청학 녹차(小) 20,000 (다기잔 2개 포함)
- 청학 녹차(大) 30,000 (")
- 15,000 (다기잔 없는것)
- * 문의: 634-4359
634-6508

부끄럼없이 만들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해주십시오

산하어린이 시리즈는 산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와 형식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눈 이야기를 눈여겨보는 것은
산하어린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읽어 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생애이야기

- ① 울면서 하는 숙제 어오덕
- ② 차돌이는 환경박사 김현아
- ③ 나에게는 보여 줄게 오민진
- ④ 비오는 날 알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 ⑤ 공부하는 왜 해야 하는 한 교실 어린이
- ⑥ 통일은 참 쉽다 동시·동화
- ⑦ 혼자서 쓰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⑧ 날마다 쓰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⑨ 인요기행 신정민
- ⑩ 나뭇잎 교실 윤태규
- ⑪ 천연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 ⑫ 숙달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과학이야기

- ①②③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 ④⑤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창영
- 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⑦ 끊임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⑧ 악착같이 달라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역사이야기

- ① 연오랑 세오녀 조효상
- ②③④ 임궫정과 일곱형제들 1·2·3 김우일
- ⑤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태
- ⑥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배봉기
- ⑦⑧ 꼬마 단군 1·2 정우상
- ⑨⑩ 소년독립군 주몽이 1·2·3 김정민

엔터테인먼트

- ① 전태일 위기철
- ② 윤동주 정진구
- ③ 신채호 김서정
- 창작동화
- ④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 ⑤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 ⑥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김 목
- ⑦ 하늘의 눈물 권정생
- ⑧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 ⑨ 신나는 교실 윤태규
- ⑩ 바보와 바보 박상규
- ⑪ 생명이 돌려 준 이야기 위기철

- ⑫ 말꼬마이 이상권
- ⑬ 허투나라 허투왕 이준연
- ⑭ 상계동 아이들 노경실
- ⑮ 따뜻한 사람 박상규
- ⑯ 도둑 마을 정문식
- ⑰ 회초리와 훈장 윤기현
- ⑱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 ⑲ 아기장수 조효상
- ⑳ 고독한 가수과 꼬마배우 이상권
- ㉑ 섬마을 아이들 신용행
- ㉒ 아이쿠나 호랑이 윤태규
- ㉓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현

- ㉔ 친구 없이는 못살아 이재복
- ㉕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 ㉖ 작다고 잘못다 큰코 다쳐요 이재복
- ㉗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 ㉘ 김철지의 메주콩 이재복
- ㉙ 팔죽 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 ㉚ 사장이 된 플랑장수 박상규
- ㉛ 집을 나간 소년 한 덕
- ㉜ 허느님에 우리열집에 살고 있네요 권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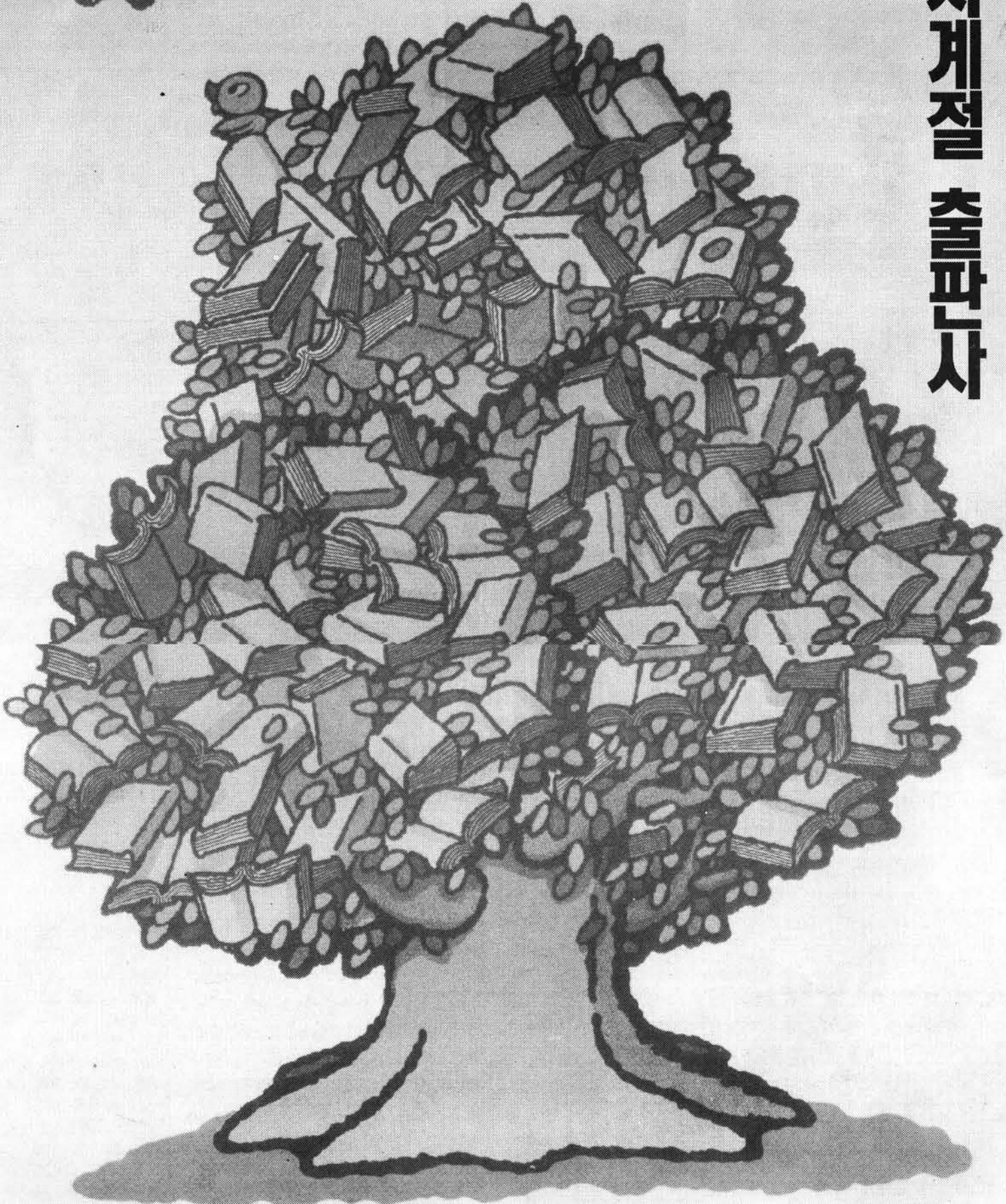
◆ 각권 값 2,800~4,000원/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산하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10
전화 392-7641 팩스 313-2582

사계절 (주)사계절출판사

전화: (02)736-9380



성장의 의미를 사계절 출판사 생각합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93 최고 베스트셀러
'93 10대 히트상품
「바깥다, 논리야」

■ 사계절출판사는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인지발달 영역	언어발달 영역	사회성발달 영역	감성발달 영역
유 년 아 동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 「아빠가 되고 싶어요」 「개가 무서워요」 「가자! 공룡의 세계로」 「반갑다 논리야」, 「논리야 놀자」, 「교매파 논리야」 「산수보다 쉬운 수학 1, 2」	「두드리보아요」 「찾아보아요」 「들어보아요」 「물어보아요」	「눈오는 밤」 「복숭아가 지난 후」 「소풍가던 날」 「엄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달라요?」 「우리 시대의 인물이야기」(1~5)	「눈오는 밤」 「복숭아가 지난 후」 「소풍가던 날」 「내친구 비치」, 「날아가는 교실」 「제닝스는 풀썩가 아니야」 「남북어린이가 함께보는 전래동화/창작동화」
청 소 년	「반갑다 논리야」, 「논리야 놀자」, 「교매파 논리야」 「이야기 파라독스」 「아하! 바로 그거야」 「돌도끼에서 비디오 교양이까지」 「시간으로 보는 생물 이야기」	「다시 읽어야 할 우리 소설」 「교실밖 국어여행」 「인생을 알게하는 우리 수필」 「세상을 알게하는 우리 수필」 「근현대 명논설 1, 2」	「교실밖 국사여행」 「교실밖 세계사여행」(근간) 「교실밖 지리여행」	「사랑과 지혜의 나무」 「너의 용기만큼 큰 산」 「돼지가 한 마리로 죽지 않던 날」 「교실밖 음악여행」(근간) 「교실밖 미술여행」(근간)
일 반 인	• 문예 스테디 「임궏정」 「일출봉」 「여자가 여자에게」 「아주 작은 지혜들」 「웃음과 여유를 주는 지혜들」	• 경제 스테디 「손바닥 경제」, 「손바닥 금융」, 「손바닥 세계경제」 「경제기사 소프트」, 「이야기 한국경제」 「전략이 있어야 기업이 산다」 「전략적 벤치마킹」, 「한국의 벤치마킹」 1, 2 「손바닥 세금」, 「손바닥 한국경제」	• 실용서 스테디 「안전운전 365일」 「명의 병원 소프트」 「여자가 궁금해 하는 의학상식 125가지」	• 인문 사회과학 「분단의 부상」 「형상과 진형」 「북한 백문백답」

• 사계절출판사의 대표적인 신간도서를 중심으로 엄선했습니다.